

민주연구원 '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시리즈6,7 : 충남도민·세종시민의 눈물' 발간

-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(원장 이재영)은 1월 26일(월), “국민의힘 지방정부 평가 시리즈 6,7편 : 충남도민·세종시민의 눈물” 정책브리핑 특별호를 발간했다.
 - 민주연구원은 지난 19일 서울, 20일 부산, 21일 인천, 22일 대전, 23일 울산 등 해당 지역의 평가 보고서를 매일 차례대로 발표하고, 오늘 26일 충남·세종을 시작으로 도 지역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.
 -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“정책브리핑 특별호 6편, 충남도민의 눈물’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정책과 행정을 평가”했으며, “진정성이 부족한 행정통합, 막말논란, 취임 후 충남 북부와 남부의 격차 심화, 인사 실패 등 김 지사의 여러 방면에 걸친 도정 실패를 정리했다”고 설명했다.
 - 이어 “정책브리핑 특별호 7편, 세종시민의 눈물’은 최민호 세종시장의 정책과 행정을 평가”했으며, “내란옹호, 언론탄압, 행정·인사재난 대응 시스템 실패, 취임 후 심각해진 세종시 재정 등 최 시장의 다방면에 걸친 시정 실패를 정리했다”고 설명했다.
 - 마지막으로 “이번 정책브리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민과 세종시민이 김태흠 지사와 최민호 시장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선거에 있어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발간했다”라고 설명했다.
- ‘정책브리핑 특별호 6편, 충남도민의 눈물’에서는 김태흠 충남 도정의 10가지 문제를 세 가지 주제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.
 - 첫째, 주민 외면이다. 주민을 위한 행정통합이 아닌 자신의 ‘행정통합’ 특별법 원안만을 고수하는 행정통합과 수해 대참사를 외면한 채 강행한 유럽 출장 등의 주민 외면을 다루었다.
 - 둘째, 실언 및 태도 논란이다. 윤석열 탄핵 반대, 국감에서의 고압적 태도, 도의원에 대한 막말, 지속적 반노동 발언 등 도지사로서 부적절한 실언과 태도를 다루었다.

- 셋째, 정책 및 인사 실패다. 도지사 취임 후 심해진 충남 북부와 남부의 격차, 격차해소 정책에 무관심한 도정, 특정 종편에 집중된 광고비 집행, 부적격자의 공공기관장 채용 등 정책 및 인사 실패를 다루었다.

○ ‘정책브리핑 특별호 7편, 세종시민의 눈물’에서는 최민호 세종 시정의 10가지 문제를 세 가지 주제로 묶어 소개하고 있다.

- 첫째, 시장 리스크다. 최민호 시장의 내란옹호 발언, 언론탄압 논란, 통일교 유착 의혹 등 시장으로써 부적절한 실언과 행동을 다루었다.
- 둘째, 행정 실패다. 행정검증 부실로 인한 땅 투기 의혹 사업자 선정, ‘블랙리스트’ 연루자 임명과 같은 인사검증 실패, 재난대응체계 부실로 인한 폭우 피해 농장 대응과 수해 중 강행한 유류 출장 등 주민을 외면한 행정 실패를 다루었다.
- 셋째, 정책 실패다. 최 시장 취임 후 심각해진 세종시의 재정상황, 상가 공실률 1위 (25.8%), 합리적·과학적 근거 없는 세종보 재가동 촉구 등 ‘행복도시’ 세종시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 최 시장의 정책 실패를 다루었다.

○ 민주연구원 임규빈 연구위원은 “김태흠 도정의 주요 문제는 막말 및 부적절한 태도, 취임 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충남 북부와 남부의 격차와 이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한 무관심”이라는 지적과 함께 “최민호 시정의 주요 문제는 시장으로써 부적절한 실언과 행동, 행정·인사검증 및 재난대응체계 부실, 취임 후 악화되고 있는 세종시 경제상황을 해결하지 못한 채 방치하고 있는 정책 실패”라고 덧붙였다.